

중남미는 왜 변화를 선택했는가

- 중남미 정치·경제 전망과 시사점 -

오성주 수석연구원, 신성장/그룹사업연구센터(supremo9@posri.re.kr)

목차

1. 중남미 정치·사회 지형 변화
2. '18년 브라질·멕시코 대선 결과와 의미
3. 중남미 정치·경제 변화 및 '19년 전망
4. 시사점

Executive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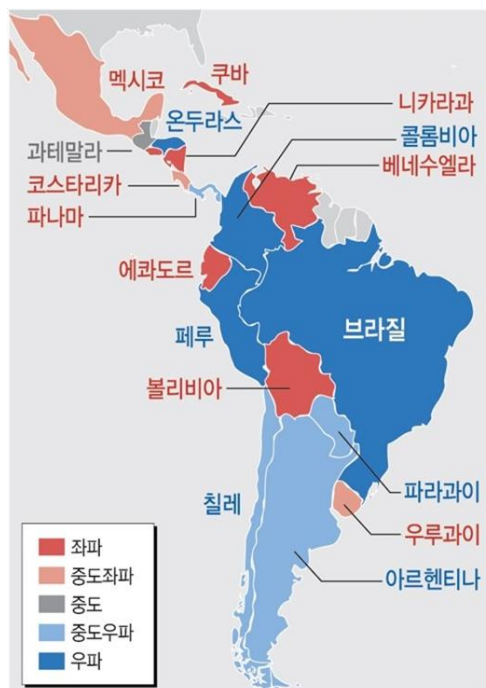
- '18년 중남미 선거 결과는 과거 20년과는 크게 다른 양상을 보였으며, 그 특징은 이데올로기적 가치 변화보다는 부정부패, 정경유착 등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권력 비리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의 변화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
 - 남미 이데올로기를 주도해 온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우파로의 정권 교체는 이념적 가치 변화라기 보다는 前 정부의 부정부패와 경제정책 실패 때문
 - 다른 예로써 멕시코에서는 브라질과 반대로 우파 장기 집권이 끝나고 좌파인 오브라도르가 당선되면서 이번 중남미 대선에서 이념적 대세가 없었음을 뒷받침
- 한편, 중남미 경제는 장기 침체에 따른 기저 효과로 '18년 경기 반등이 기대되었으나, 멕시코 NAFTA 불안, 아르헨티나 외환 위기, 미 금리인상 가속화에 따른 브라질 자금 이탈 등 sober인 리스크가 증가하면서 하향 조정
 - '18년 중남미 경제부진 원인은 재정·경상적자 심화, 부채 증가와 외환보유액 감소, 미 금리인상 및 달러 등 신흥국 긴축 발작에 따른 투자 자금 이탈로 요약
 - 올해 중남미 관심사는 브라질 연금개혁과 대선갈등 봉합, 멕시코 오브라도르의 적폐청산 성과와 에너지정책 대변화에 따른 투자 불안 해소, 아르헨티나는 IMF 구제 금융 신청에 따른 긴축 부작용 최소화 여부임
- '19년 주요국들의 정권 교체로 부패 척결과 경제 재건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 반영이 불가피함에 따라 큰 폭의 정치, 경제 및 사회 변화 전망
 - 브라질은 연금개혁 등 균형 재정 노력과 투자 자원 마련을 위해 민영화 추진
 - 멕시코는 사회 전반 개혁으로 부패척결, 빈부격차 축소, 복지 확대에 주력
 - 아르헨티나는 IMF의 지원 조건 이행을 위한 고강도 개혁과 재정 건전성 강화로 금융 불안을 조기 해소 시도 예상
- 중남미 대선 종료로 정치 불안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으나, 新정부 출범 초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에 따른 이해 관계자 간 갈등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경제 불확실성은 지속
 - 브라질은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연금개혁 再논의가 예상되나, 지지 세력 일부의 반발과 다수당인 PT의 반대로 입법까지는 시간 소요 또는 일부 후퇴 불가피
 - 멕시코는 신공항 건설 중단 후폭풍, 에너지 정책 변화 등 폐소화 불안에 따른 국제 투자기관 관망세 전환, 후속 정책 여부에 따라 실물 경제로 파급 가능성
- 반면, 경기 침체 해소를 위해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어 '19년은 전년보다 높은 성장이 예상되며 중점 추진 분야들은 빠른 회복도 기대
 - 브라질은 내수 활성화 차원 수입쿼터 완화, 비관세 규제 축소, 양자 교역 확대 등 통상 기조 전환, 바이오, IT 등 혁신·신기술 분야 투자로 산업 고도화 추진
 - 멕시코는 對美 의존도 축소 및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낙후된 남동부 주에 정유 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 주도로 철도, 도로, 공항 등 인프라 확충 계획
- 올해도 대외 환경 불확실성 지속으로 신흥국 위기 재발 우려는 있으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 시장 개방에 나섬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對중남미 시장 진출 기회는 증가

1. 중남미 정치·사회 지형 변화

□ 지난 10월 브라질 대선을 마지막으로 우파 성향 후보들이 대부분 승리하면서 최근의 중남미 선거 결과는 과거 20년과는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이며 역내 정치·사회 지형에 큰 변화 예고

- '18년 많은 중남미 전문가들이 예상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선거에서 좌파 후보들이 고전하여 핑크 타이드(Pink Tide) 퇴조 현상이 뚜렷
- '17년 12월 칠레 세반스티안 피네라(우파) 당선, '18년 4월 파라과이 마리오 베니테스(중도우파), 6월 콜롬비아 이반 두께(강경 우파), 11월 브라질 보우소나루(극우)의 대통령 당선으로 중남미 우파 쏠림 현상 심화
- 이 외에도 '15년 11월 아르헨티나 마크리(중도우파), '16년 6월 페루 쿠친스키(우파, '18년 3월 비스카라 대통령직 승계)가 당선되어 코스타리카 알바라도(중도좌파, '18년 4월)와 멕시코 오브라도르(중도좌파, '18년 7월)만이 예외

〈중남미 정치 지형 변화〉



출처: 연합뉴스('18.10.29일자)

※ 핑크타이드(Pink Tide): 2000년대 이후 중남미에서 혁명이 아닌 선거를 통해 좌파 정부가 연쇄적으로 집권하여 '분홍 물결'이라 일컬음. 온건 또는 중도 좌파 성향으로 원자재 호황기 큰 인기를 누렸으나 경기 침체로 퇴조

□ 이 현상은 중남미의 이데올로기적 가치 변화보다는 부정부패, 정경유착 등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권력 비리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의 변화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해야 함

○ 남미에서 전통적으로 이데올로기를 주도하는 국가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이며, 이들의 정권 교체 배경은 이념적 가치 변화보다는 以前 정부의 부정부패와 경제정책 실패 때문이었음

- '15년 11월 아르헨티나 결선에서 예선 2위의 소수 정당 후보였던 마크리가 깜짝 당선된 배경에도 경제 재건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기대가 결정적으로 작용
- '17년 10월 중간 선거도 보수 여당 승리로 평가되지만, 의회 구성은 여전히 與小野大여서 국민 절반 이상은 여전히 페론주의를 지지하고 있다는 반증
- '16년 8월 브라질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우파인 테메르 정부가 출범하였으나, 이 역시 과거 左右간 연합 정부를 이루었던 부통령의 대통령직 승계이며 이념적 가치의 변화가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음
- 우파인 테메르 대통령 역시 뇌물 비리와 정책적 무능을 답습하면서 역대 최악인 3%대 지지율로 임기를 끝내며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김

○ 멕시코에서는 남미와 반대로 중도 우파의 78년 장기 집권이 끝나고 사상 처음으로 민족주의 성향 좌파 후보인 오브라도르(AMLO)가 당선되면서 이번 중남미 대선에서 이념적 변화는 대세가 없었음을 뒷받침

- 북중미인 멕시코는 NAFTA 편입 이후, 미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때때로 중남미와 다른 이념적 성향을 보여 왔으나, 이번 대선에서는 미국과 중남미 모두와 디커플링(De-coupling)되면서 기존 이념적 논리로는 설명하기 어려움
- 특히, AMLO는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직접적인 반감을 표출하고, 더 나아가 멕시코우선주의(México Primero)를 주창, 애국심으로 국민들에게 큰 지지를 얻으며 경제 주권 확립에 대한 기대

※ 오브라도르(AMLO: Adrés Manuel López Obrador): 남부 빈민가 출신 재야 운동가로서 명성을 쌓았으며, 과거 멕시코시티 시장 재임 시 親서민 정책으로 인기. 지난 대선에서 연합여당 후보로 출마하여 과반 이상 득표로 돌풍

2. '18년 브라질·멕시코 대선 결과와 의미

□ 브라질 대선 결과 분석과 의미

○ '18년 10월 대선에서 극우(PSL) 성향의 보우소나루 후보와 급진 좌파(PT) 성향인 아다지 후보 간 결선 투표에서 보우소나루가 55.1% 득표로 완승

- 지난 브라질 대선은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룰라 전대통령의 출마가 무산되면서 유력 주자 없이 무려 13명의 후보가 난립한 가운데 정책·이념적 차별화가 약해지면서 사상 유례없는 혼란 속 시행
- 특히, 브라질 선거는 강제 의무이자 전자투표 방식이어서 후보자들의 인지도가 낮을 경우, 정책 공약이나 성향을 모르고 하는 '깜깜이'식 투표도 많아 결국 뚜렷한 차이가 있는 양 극단의 후보에게만 표가 쏠리며 사회 분열이 가중
 - 1차 투표에서 보우소나루(46.03%)와 아다지(29.28%) 양대 후보가 이미 전체 득표의 75% 이상을 차지하면서 다문화주의로 상징되는 브라질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력이 크게 후퇴

○ 보우소나루는 과거 군부독재 찬양, 여성 혐오 등 극우적 발언으로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SNS를 적극 활용하는 소통 능력, 검소하고 청렴한 이미지로 브라질의 구조적 부정부패 해소와 경제 정상화 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로 결선에서도 완승

- 보우소나루는 초급 장교시절, 군 내부 비리를 제보하여 양심적 군인 이미지를 형성, 이후에도 부패 사건에 연루된 적이 없어 깨끗한 정치인 이미지 구축
- 연방 선거에서는 무명에 가까운 낮은 인지도였지만, '13년 전·현직 대통령과 집권당 원내 대표까지 역인 초대형 부패 스캔들인 '라바 자투(Lava Jato)' 사건을 계기로 호세프-테메르 정부를 맹렬히 비난하면서 인기가 급상승
 - 보우소나루는 주요 언론에 의존하지 않고 유튜브 등 SNS를 통해 경기 침체와 치안 악화의 원인을 정부와 집권당(PT, MDB)과 주요 야당(PSDB) 등 기득권의 부정부패 문제로 인식하면서 독자적인 지지층을 구축

※ 라바 자투(Lava Jato: 세차용 고압분사): 국영 석유회사인 Petrobras가 사업상 이득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만들어 활용, 오랜 기간 정·관계에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한 사건. 일회성 공여가 아닌 부패 메커니즘으로 밝혀져 브라질 사회에 충격을 줌

- 반면, 15년간 장기 집권한 노동자당(PT)은 과거 경제 실패에 대한 책임이나 국가 미래에 대한 뚜렷한 비전 제시 없이, 향수에 젖어 과거 브라질 경제 호황을 이끌던 룰라에만 의존하는 패착
 - 과거 주변국들이 유사한 대선 전략으로 칠레('14년) 바첼렛과 우루과이('15년) 바스케스가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유력 주자가 없던 PT는 룰라에 집착, 변화를 원하는 민심을 못 읽고, '아다지가 룰라다!'라는 설득력 없는 구호로 완패
 - 또한, 룰라는 자신이 만든 '피샤 림파'(Ficha Limpa; 깨끗한 경력, 부패 정치인 출마 방지법)에 적용, 우파 행정부와 독립적인 사법부가 옥중 출마를 철저히 막아들이면서 허무하게 승패가 갈림
 - 브라질 국민들은 사회 개혁이라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이상적 기대보다는 현 브라질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정부패와 더욱 악화되는 치안 해결이라는 현실적 이슈에 더 큰 의미를 부여

□ 멕시코 대선 결과 분석과 의미

- '18년 7월 총선과 함께 치른 대선에서 소수 야당 MORENA와 AMLO 후보가 53.2% 득표로 압승하면서 철옹성 같았던 기득 정당 PRI(제도혁명당)의 장기 집권 신화는 급격하게 붕괴
 - 역대 최대 규모 선거에서 AMLO의 연합 정당(Juntos Haremos Historia)이 상원(68/128석)과 하원(307/500석)을 모두 장악하여 기대 이상으로 완승한 반면, PRI의 대선 후보인 Meade는 충격적 3위(16.3%)로 민심과 이반
 - PRI는 멕시코의 독특한 사회지배 체계인 코포라티즘(Corporatism)을 통해 78년 동안 군부 개입이나 유혈 사태 없이도 형식적 민주주의를 갖춘 선거만으로 장기 집권하며 정·재계를 완전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패배로 큰 충격
 - ※ 코포라티즘(Corporatism; 조합주의): 한국의 산업 근대화 시기 '노·사·정(勞·使·政) 위원회' 역할과 유사. PRI 창당 초기, 국가 주도로 정치 안정과 경제 성장을 지속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PRI의 장기 집권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국가의 사회 통제 기능이 강화되어 소유와 분배 구조가 왜곡되고 빈부 격차가 심해지는 등 부작용 발생.
- 멕시코는 브라질과 달리, 중도우파에서 좌파 정부로 교체되었으나, 이러한 변화의 본질적인 배경 역시 국민들의 정치 성향 변화보다는 만성적인 정적유착과 부정부패 척결 및 경제 재건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

- 과거 한때 PRI는 마약 카르텔과 오랜 결탁으로 유권자의 신뢰를 잃어 PAN(국민행동당)에 2회 연속('00~'12년) 정권을 내주었으나, 이 기간 추진된 '마약과 전쟁'이 오히려 20만 명 이상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내면서 정권 탈환에 성공
- '12년에 재집권한 PRI는 니에토 대통령 측근과 가족의 뇌물 비리, 43명 시위 대학생 인권 유린, 경기침체 및 물가안정 실패 등 과거 고질적인 문제점을 재현하면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로 지지율 급락
- 한편, 멕시코 인구의 45%가 절대 빈곤층인 구조적 특성으로 AMLO는 빵을 제공하지 못하고, 사회 분열만 조장한다는 '공산주의자' 프레임에 갇혀, 부정 선거 의혹이 있었던 '06년에는 0.3%차, '12년 6.6%차로 대선에서 석패
- 그러나 AMLO는 두 차례 대선 패배의 경험을 잘 활용,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정 정책을 강화하되 시장 유화적인 공약을 통해 중산층과 기업인 등 외연 확대에 성공

3. 중남미 정치·경제 변화 및 '19년 전망

□ 중남미 경제는 장기간 경기 침체에 따른 기저 효과로 '18년은 경기 반등 기대에도 불구하고, NAFTA 불안, 아르헨티나 외환 위기, 미 금리인상 가속화에 따른 자금 이탈 등 소버린 리스크 증가로 하향 조정

○ '18년 중남미 경제 부진 원인은 재정·경상적자 심화로 인한 부채 증가와 외환보유액 감소, 미 금리인상에 따른 달러 및 신흥국 긴축 발작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 자금 이탈로 요약

- 또한, 자국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수출 경쟁력 증가 효과에도 농산물 작황 부진과 美·中 무역갈등 심화에 따른 글로벌 교역량 축소, 고유가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 등도 악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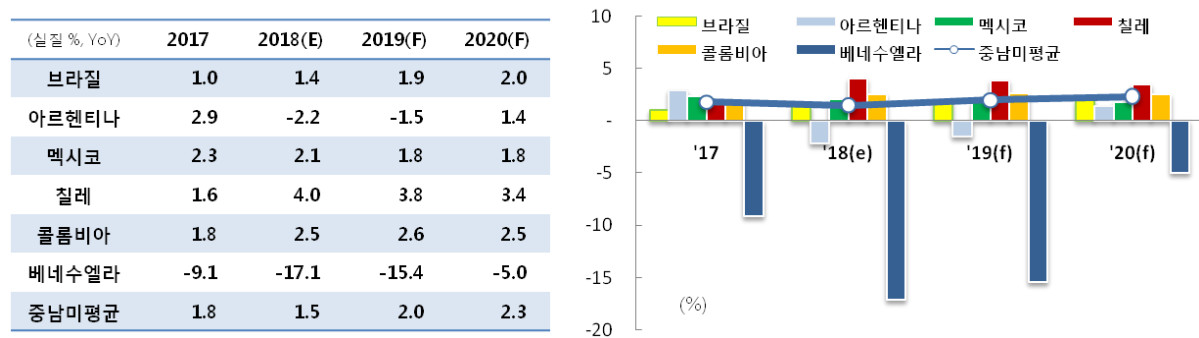
○ 올해 주요 관심사는 브라질의 경우, 연금개혁과 대선갈등 봉합, 멕시코는 AMLO식 적폐 청산 성과와 에너지정책 변화에 따른 투자자 불안 해소, 아르헨티나는 IMF 구제 금융 지원에 따른 긴축 부작용 최소화 여부

- 이 외, G2간 갈등 심화에 따른 중남미의 對美·對中관계 변화, 중미 캐러밴과 미-멕시코 간 국경 갈등 이슈, 베네수엘라 국가 부도 가능성과 주변국 난민 수용 문제, UNASUR(남미국가연합), MERCOSUR(남미공동시장) 등 역내

공동체 역할 변화와 지속 여부 등이 향후 전망의 주요 변수로 작용

※ 캐러밴(Caravan; 사막·초원에서 무리를 지어 이동해 다니는 상인): 최근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중미 국가에서 마약, 살인 등 강력 범죄와 정치적 박해를 피해 자국을 떠나는 이민자 행렬을 의미

〈중남미 경제성장률 전망〉



□ 주요국들의 정권 교체로 부패 척결과 경제 재건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 반영이 불가피함에 따라 '19년은 큰 폭의 정치·경제 변화 예고

- 올해 초 출범한 브라질 보우소나루 정부는 재정지출 축소로 균형 재정 노력과 동시에 시장 자유주의 기조를 확대하고,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민영화 추진과 함께 적극적인 親美 외교로 투자자 신뢰 확보에 집중
 - 주요 정책으로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연금 개혁, 정부 부처 축소, 공공 자산 매각과 공기업 민영화 등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부정 축재 엄벌과 부패 예방을 강화한 10대 개혁 입법 예고 등
 - 교육·보건과 환경 분야는 효율적 재정 운영으로 현 수준을 유지하는 한편, 치안 강화를 위해 공권력 강화와 동시에 총기 규제 완화를 추진함에 따라 논란 예상
 - 대외 분야에서는 역내 좌파 정치 불력인 UNASUR에서 탈퇴하고, 폐쇄적 경제 공동체인 MERCOSUR 중심 교역에서도 벗어나, 미국과 협력 관계를 모색하고 아시아 주요국들과도 교역 확대에 나설 전망
- 역사상 최초 좌파 정부가 출범한 멕시코는 미국과 新우호 관계를 정립하고,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른 투자자 불신 해소에 노력하면서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으로 부패 척결, 빈부격차 축소, 복지 확대에 주력 전망
 - 주요 정책 방향은 멕시코 혁명 시대 민족주의 정신 부활, 치안 문제 해결과 함께 빈곤 퇴치를 위한 최저 임금 인상, 노인 연금 증액, 청년 교육 확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정 지출 확대에 나설 전망

- 에너지 정책은 기존 외국인과 민간투자 참여 허용으로 활발해진 원유 상공정 개발 중심에서 낙후된 남부 지역의 정유 인프라 구축으로 중심 축을 전환함에 따라 투자 자원 마련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낮은 실효성에 대한 우려 존재
 - '18년 11월, AMLO 당선자가 당시 진행 중인 U\$130억 규모의 수도 신공항 건설 사업 취소를 결정하자 Pitch社は 멕시코 신용 등급을 부정적으로 조정, 폐소화 가치 9% 하락, 주식 시장(IPC 지수) 11.5% 하락 등 금융 시장 부작용
- 현재 외환 위기 중인 아르헨티나는 IMF 지원 조건에 따른 통화·재정 긴축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 高강도 개혁과 재정 건전성 강화로 금융 불안을 조기 해소하고, 해외 투자자 再유입을 통해 시장 신뢰 회복 노력
 - '18년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의 미 금리인상으로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마크리 정부는 환율과 물가 안정에 실패, IMF 구제 금융을 신청하면서 크게 고전
 - 특히, 과거 금융 위기 정상화 차원에서 마크리 정부 출범('15년 12월) 이후 발행한 통화안정화 채권(LEBAC)에 대해 올 4월부터 해외 기관들의 자금 회수 러시로 외화 유출이 급증(최대 U\$500억 추산)
 - '19년 재선을 준비하는 마크리 대통령은 IMF 및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올 상반기까지 외환 불안을 확실히 해소하고, 외국인 투자 유도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정치적 승부수로 위기 타파 시도 예상
 - 마크리 정부는 현 외환 위기의 책임을 페르난데스 前 정부의 부정적 유산('15년 말 기준 대외부채 U\$1,800억)으로 전가(轉嫁), 최근 IMF와 관계 회복 및 금융 지원에 조기 합의하면서 반전 기회로 활용

4. 시사점

- 주요국 대선 이후, 정국 불안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으나, 新정부 출범에 따른 강력한 개혁 추진으로 지역 또는 이해 관계자 간 갈등으로 올 상반기까지 경제 불확실성은 지속
- 브라질은 재정 적자 축소를 위해 올 상반기부터 의회에서 연금 개혁 再논의가 예상되나, 지지 세력 일부의 반발과 상원 다수당인 PT

(노동자당)의 반대로 최종 입법까지는 시간 지체 또는 일부 후퇴 불가피

- 멕시코는 신공항 건설 중단, 에너지 정책 대전환 등 해외 투자자들의 우려에 따른 폐소화 불안으로 국제 금융 기관들이 관망세로 전환, 향후 후속 조치 및 개혁 입법 정도에 따라 실물 경제 침체 가능성

※ 장기간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비 증가한 국민 소득이 인권 신장, 시민 의식 증가 등으로 이어지면서 중남미 주요국들의 고질적인 정경 유착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중남미 경기 침체 장기화 해소를 위해 주요국들이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어 올해 중남미 경제는 예년보다 높은 성장이 예상되며 중점 추진 산업 분야들은 빠른 회복도 기대

- 브라질 新정부는 재정 지출은 동결하되, 국영 기업 민영화로 투자 재원을 마련, 바이오, IT 등 혁신·신기술 분야 투자 지원으로 산업 고도화 추진,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입쿼터 완화, 비관세 규제 축소, 양자 교역 확대 등 통상 기조 전환
- 멕시코는 정유에 대한 對美 의존도를 줄이고,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Tabasco, Campeche 등 낙후된 남동부 주에 정유 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 주도로 남부 지역에 철도, 도로, 공항 등 대규모 인프라 확충 계획

□ '19년도 美·中 무역 갈등 지속, 美 금리인상 유지 등 열악한 대외 환경에 따라 신흥국 위기 재발 우려가 있으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시장 개방 기조로 전환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對 중남미 교역 확대 기회는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멕시코 AMLO 정부는 對美 의존도 축소 및 NAFTA(USMCA, 멕시코명 'T-MEC'으로 대체)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교역국 다변화 방침,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도 MERCOSUR(남미공동시장)의 공동 대외 무역협상 방식에서 탈피, 개별 협상 허용 추진 전망
- 한국 정부도 지난 9월부터 한-MERCOSUR TA(Trade Agreement) 협상 개시 및 멕시코가 속한 PA(태평양동맹) 準회원국 가입을 추진 중이어서 향후 중남미 국가들과 교역 확대 증가 예상에 따라 유망 사업 기회 등 예의 주시 필요

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보고서]

오성주, "위기의 브라질, 근본적 원인과 향후 전망", POSRI 이슈리포트, 2016.7

오성주, "미국 보호무역 강화와 철강 환경 변화 및 시사점", POSRI 이슈리포트, 2017.12

김효은·김진오, "브라질 보우소나루 정부의 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KIEP, 2018.11

[기고문]

오성주, "브라질 대선 혼란 수습과 재정 개혁으로 신흥국 투자자 신뢰 회복 급선무",
매경아웃룩 2019, 2018.11

[언론자료]

연합뉴스, "[그래픽] 중남미 정권 성향", 2018.10.29

[홈페이지]

IHS Connect (connect.ihs.com/home)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국제금융센터 (www.kcif.or.kr)

World Bank (www.worldbank.org)

IMF (www.imf.org)